

협회 전문화에 모두가 참여해야



▲현재 분회장을 맡고있는 성창규시장(右)

**생산자 모두가 참여하여
전문화된 협회를 만들어
양계산업을 위한 권익보
호단체로 만들어가야 한
다.**

취재 : 김용화기자

대단위 공업단지의 조성과 함께 눈부신 발전이 이룩된 경기도 이천읍-늘어난 공장만큼 인구도 아울러 증가하여 닭고기 소비도 대폭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이 이천분회(분회장:성창규)의 분석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경기도 이천하면 맛 좋은 쌀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인데 닭고기 또한 질병이 없어 위생적이라는 것이 서울지역상인들로 하여금 정평이 나있다.

단합하면 발전여지 커

아직은 분회 운영이 초창기적 단계를 갖벗어난 상태이지만 공업단지의 팽창과 더불어 증가하는 인구

와 함께 발전하고 있는 이곳 이천 지역은 양계인들이 단합만 굳건히 한다면 발전의 여지가 많은 곳이다. 현재 이천분회는 초대 분회장인 강기필사장을 주축으로 하여 이천군내 채란·육계업자 20여명이 모여 1978년 10월에 본회에 분회로써 등록신청을 하여 이듬해인 1979년 1월에 현판식을 하였다. 분회장을 맡고 있는 성창규사장은 "저와 함께 분회운영에 앞장서고 있는 회원들은 한결 같이 어떤 개인적인 이득만을 바라고 뛰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 전체의 이득을 위하고 이것이 나아가 내사업에도 연관이 되어 적어도

적자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오해도 많이 받았읍니다. 저희들만 특별한 이득을 취해가는게 아니냐는 의문 때문이었죠. 그러나 몇년이 흐르는 동안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이 쌓이게 되어 현재는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축산 단체가 한곳에

이곳의 특징은 무엇보다 전축종에 걸쳐 협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회비에 대한 부담감을 감안하여 현재는 월례 회때 회비도 거두지 않고 있다. 과거에 병아리를 공동구매하여 지출한 기금을 축협에 출자하고 사무실 사용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데 축협 건물내에는 양돈협회, 매일유업, 서울우유낙우회, 비육우협회, 양계협회가 각각 모여 있다.

이천지역 육계업자만 하더라도 견업을 많이 하는데 각종 협회 사무실이 한군데에 모여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회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이런 여건이 모체가 되어 이천축산인 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축산인 모두가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여 축산인 단결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축산인 체육대회는 군내행사로 발전

"현재 이천 분회는 영리사업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아리 공동구매도 회원들의 개인적인 경영력이 높아져 시행을 중단했고 현

**협회에 가입하면
일시에 큰 이득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큰 잘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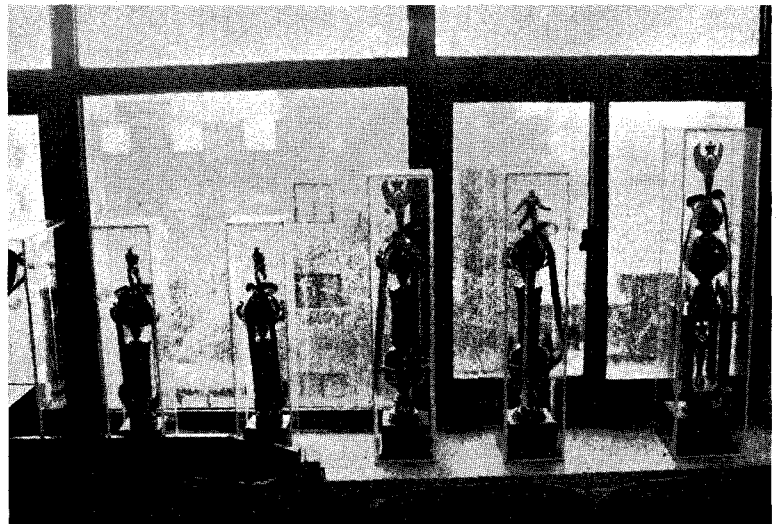
소비의 안정화를 꾀해갈 생각입니다. 이천군내의 육계업자는 대략 60여명선에 달하고 있지만 회원이 20여명으로 1/3밖에 되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회에서든 각 분회의 회원 증대 노력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의 이득을 생각할 때

전국 어느 곳이나 양계업자들의 단합을 위한 노력은 매우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가 예측을 불허할만큼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합된 힘이 없다면 언제 어디서 하루 아침에 생업을 잃을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천분회의 경우 처럼 관내 생산자의 1/3만이 공동대처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각 분회의 운영위원들이 한결 같이 토로하는 것은 생산자들이 한꺼번에 너무 큰 이득만을 기대하여 분회가입에 부정적인 행동

재는 회원사용량의 70%정도 사료만 입찰을 공동으로 하여 놓고 개인별로 가져다 사용하는데 많은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들의 육계생산량은 월40만수정도인데 성수기때에는 50~60만수까지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90%가 서울시장으로 상인을 통해 처분되고 10%는 자체 소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강력한 분회로 발전시켜 단체급식소와 같은 대량 소비처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생산된 물량

▼ 이천분회의 단결력을 보여주는 각종대회 우승트로피



을 취한다는 점이다.

"우리산업에 발생하는 문제는 양
 계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러나 전반적인 세계나 수입개방 문
 제 같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야할 것은 농민의 편에 서서 서로
 가 이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바
 라는 것이고 현재 육계업이 대규모
 화 되는 것만이 성공하게 되는 것
 처럼 유도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자가노동력을 이용
 하여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적합한
 규모는 2~3만수 정도라고 봅니다.
 이들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펴주었
 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분회나
 나아가 본회가 아직 전문화되지 못
 하고 있는 점이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참여하여 협회발전에 노력 해야

있는 기구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처지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분리다 독립이다 하여 새로운 단체
 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분과별로 강
 력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끔
 양계업자들은 모두가 자진 참여를
 해야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대한양
 계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양계업
 자들이 단합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
 운 여건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본회도 단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생산자를 위한 발전방법
 을 제시하고 현장에 있는 생산자들
 과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모두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하여 양계산
 업 발전에 앞장서 주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협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생산자가 많음을 감안
 해야 합니다.**

아직도 양계협회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생산자들이 많음을
 감안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천쌀만큼 맛좋다는 닭고기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이천분회 회원
 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래서
 양계산업은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흰 얼굴빛은 아니었
 지만 경제에 대해서도 증권에 대해
 서도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방법에도, 또한 수입개방 같은 정치
 성이 있는 이야기도 모두가 관심있
 고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양계
 인이야말로 새시대 새로운장을 열
 어갈 양계업계의 주인이 아닌가 한
 다. **양기대**

대한 양계협회 이천분회 회원명부

번호	성명	직책	주소	전화번호
1	성창규	회장	여주군 능서면 매류리 327-10번지	0337-82-4517
2	최고수	부회장	이천군 이천읍 율원리 460번지	0336-2-3290
3	이길수	총무	여주군 능서면 매화리 52번지	0337-82-5267
4	김동재	감사	이천군 이천읍 송정 2리 28-1번지	0336-2-3492
5	김영종	운영위원	이천군 모가면 신갈리 26번지	0336-34-0494
6	정상현	"	여주군 능서면 매화리 52번지	0337-82-4942
7	민정호	"	여주군 능서면 매화리 52번지	0337-82-5266
8	이규택	"	이천군 호법면 동산 2리 382번지	0336-32-9165
9	윤동희	"	이천군 백사면 신대리 291번지	0336-2-4842
10	유홍렬	"	여주군 능서면 용은 2리 303번지	0337-82-4285
11	엄진용	"	이천군 이천읍 송정 2리 25-2번지	0336-2-5649
12	임홍기	"	이천군 부발면 고백 2리 산22번지	0336-32-7991
13	이덕성	"	이천군 마장면 작촌리 212번지	0336-32-2910
14	이강천	"	이천군 장호원읍 나래2리 산56-1	0336-34-2858
15	조해영	"	여주군 흥천면 외사 2리 13번지	0336-32-4738
16	한상우	"	이천군 장호원읍 외현 2리 115-15번지	0336-34-3140
17	박선웅	"	이천군 부발면 송은리 산30-1번지	0336-32-5749
18	김창국	"	이천군 이천읍 창천리 15-6번지	0336-2-6795
19	엄재국	"	여주군(읍) 교리2-1 낙원주택다동301	0337-2-4667
20	고재성	"	이천군 장호원읍 외현 2리 488-12번지	0336-34-2242